

“철도·도로 등 SOC 확충 ... 전남경제 블루오션 열겠다”

전남지사 유력 후보 인터뷰 - 주승용 국회의원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삶은 게를 먹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손으로 집어서 속살까지 맛을 봤다. 수산 관련 박사학위를 따 낸 '바다 사나이'의 박력이 느껴졌다. 요즘 일선 시군을 돌며 지역민을 만나고 있는 주 의원의 바쁜 일정 탓에 늦은 저녁을 겸한 인터뷰에서 주 의원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등 SOC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22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전남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

▲도로, 철도 등 SOC 확충이다. 전남이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SOC가 충분히 늘어나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 노인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전남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고, 이미 일부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문제는 기회다. 일본의 실버산업 연간 시장규모만 하더라도 810조원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60조원 정도다. 전남은 따뜻한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실버산업의 최적지다. 실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현재 전남도정 중 잘 되고 있는 것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박준영 지사는 전남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농수축산 생산·가공·유통 구조를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현재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60%이지만 그중 식품제조 비중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차 농산물 형태로 판매되는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생산·가공·체형 등을 결합한 한화, 보약과 건강기능을 접목한 메디컬푸드 산업화에도 중점을 뒀다.

-F1이 사실상 중단됐다. F1 지속 개최에 대한 생각은?

▲F1은 시작부터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회 재추진에 연연하지 않고 개최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수익구조 개선 및 조직 정비,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해 불평등 조항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

하겠다.
-전남발전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블루오션이다. 전남은 섬, 해안, 갯벌, 문화예술 등 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이 많다. 전남 곳곳에는 '제2의 순천만'으로 발전할 수도 많다. 제주 올레길처럼 전남 돌레길을 발굴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자원과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전남 농수산업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화, 품질화, 규모화시킬 필요가 있고 융복합의 연구 개발 확대와 농수산업 인재육성도 필요하다.

■전남지사가 되면

농업 6차산업으로 육성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F1은 개최여건 확보해야

-전격적으로 탄생하게 된 '통합 신당'이 나아가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신당 창당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 실현이다. 당리(黨利)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결합한 역사적인 결단인 만큼 6·4 지방선거 압승은 물론, 앞으로 집권역량을 극대화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약속의 정치, 소통의 정치, 정책과 대안을 내는 정치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전남지사 공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경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출신이든 새정치연합 출신이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 100% 여론조사 방식이든 배심원제든 어떤 경선방식이든지 수용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남지사 공천 과정에 전략공천

이 이뤄진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전략공천은 도민과 당원에 대한 예우가 아닌 만큼 반드시 제대로 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 전략공천 자체가 새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새정치 연합 측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의원직 사퇴에 대한 생각과 향후 관련 계획이 있는가?

▲지난 1월 2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공천 방법은

도민의견 반영 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수용

전략공천은 도민 무시

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를 자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이를 수용했다. 도지사직에 뜻을 세운 마당에 의원직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전남 서부권 SOC 관련 공약을 쏟아냈는데, 이들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있는가?

▲SOC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도지사가 필요하다. SOC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10년 중 6년을 보냈다. 지금은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SOC 건설을 통한 가장 효과적인 지역발전의 방법을 찾겠다.

-무리한 SOC 확충은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복안이 있는가?

▲전남지역 지방도 21개 노선을 완공하려면 4조원가량이 필요한데, 1년 결산은 800억원에 불과하다. 이들 노선 모두 완공하려면 40년이 넘게 걸린다. 국지도 보상비도 4000억원이 필요한데 1년 보상비는 200억원 뿐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지도 보상에만 20년이 걸린다. 하지만 땅값이 해마다 올라 보상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



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니 사업비(국비)를 못 따는 곳도 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을 통해 지자체의 큰 부담없이 SOC를 확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목포) 노선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대한 혼선이나 지연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전남도는 다양한 합리적 대안 논의가 마쳐 지역민을 분열시키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나주 혁신도시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나주와 무안공항 경유를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경제성과 정부

주요 공약

권역별 특성화로 균형발전·관광 서비스산업 육성

주승용 의원은 '당당한 전남, 준비된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당한 전남' '잘사는 전남' '섬기는 전남'을 3대 도정비전으로 잡고 있다.

슬로건에 담긴 뜻은 오랜 나후를 통해 위촉돼 있는 전남이 더욱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당당해지기 위해 잘사는 전남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22개 시·군의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농업의 6차산업화, 중소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큰 틀이다.

섬기는 전남은 도민이 있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행정·투명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그는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호남고속철도와 남해안고속철도를 조기 완공시켜 국토 서남부를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동·서부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도해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음식문화 등을 기반으

로 한 서부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명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서부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권은 생태관광·우주항공·신소재·정밀화학·신금융·지능형 물류산업 및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광양의 철강, 여수의 석유화학 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중남부권은 한방의료·해양바이오·친환경생명 산업을 토대로 한 종합휴양 지역의 특성을 강화해 생명·건강·웰빙산업·해양관광 주력거점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분야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전남지사 선거를 동·서 지역대결이 아닌 낙후된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향후 지역 개발 및 발전 정책 등의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걸어온 길

17~19대 3선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1952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서 태어났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완도, 광양, 담양 등 전남 지역 여러 곳을 오간 뒤 광주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광주 동중, 광주일고를 거쳐 성균관대 전자공학과에 수석 합격했고, 대학 졸업 이후 해군 장교로 임관해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무역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3년 전남대학교에서 수산과학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해양, 수산 전문가로 통한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고향을 위해 일하라"는 부친의 말에 따라 대기업 입사 제의를 물리치고, 여수로 내려와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

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 도의원을 지냈고, 민선 2대 여천군수(1996년), 민선 초대 통합여수시장(1998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도의원 재선도전과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무소속으로 내리 당선되면서 '선거 신화'를 썼다.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맡았고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호남 출신으로는 34년 만에 도로, 철도 등 국가 SOC를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임돼 전남지역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탤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